해방기의 소설

- ₩ 1. 시대적 상황과 과제
- ◆ 식민지 문화의 잔재 청산과 민족문학의 재정립.
- - 문단의 좌우 이념 대립 극심: 조선문학가동맹과 전조선문필가협회의 대립
- ※ 2. 해방기 현실의 사실적 묘사
- ₩ 1) 채만식 소설
- ◈ <논이야기>: 해방기의 혼란스러운 현실, 기득권이 그대로 온존하는 현실, 특히 국가 비판.
- <미스터방> < 맹순사> 등의 친일 세력 온존비판
- => 그러나 주체 정립에 실패한 허무의식.
- ※ 2) 이태준 <농토>
- 해방 후 혼란의 시대상과 계급 의식 탐색
- 3. 생명의 구경적 형식으로서의 문학 탐구
- 김동리: <역마 > 미를 절대의 경지에 올려 놓음. 운명주의
- * 황순원: <독짓는 늙은이> < 기러기> 등에서 강인한 생명력.
- ₩ 원형적 인물 탐구 및 원형의 이야기
- 4. 지식인의 친일에 대한 자기 비판
- * · 채만식의 <역로> <낙조> <민족의 죄인> · 자기 참회와 변명의 함수
- ※ 지하련의 <도정> 지식인 자기 비판의 모델
- * 이태준 <해방 전후> 해방후 혼란기와 지식인의 정체성